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 자원봉사단 이모저모

세계 각국의 도서관 인사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선발하였다. 자원봉사자의 본격적인 활동준비를 알리는 자원봉사단 발대식이 7월 15일(토),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앞으로 자원봉사단은 대회기간 동안 각종 회의장, 전시회, 공항, 등록데스크, 안내데스크, 도서관 방문프로그램 등 서울대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게 된다.

### 자원봉사단 발대식

대회를 30여일 앞둔 지난 7월 15일(토) 오후 2시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기남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한국도서관협회 및 조직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기남 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서울대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원봉사단은 서울대회 개최 배경 및 서울대회 개요 등에 관한 영상물을 보고 이상복 봉사분과위원장(대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으로부터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 및 근무요령'을 교육 받았다.



자원봉사단 대표가 “우리의 다짐” 낭독을 통해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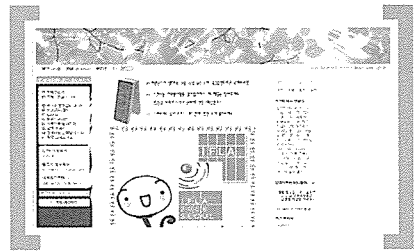


“우리의 다짐”에 이어 조직위원과 직원 소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2006서울WLIC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개설

2006서울WLIC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사람들이 대회에 관련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클럽명 : 2006서울WLIC자원봉사자)를 싸이월드 클럽에 개설하였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공지사항이나 의견수렴은 싸이월드 클럽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된다.



클럽주소 : <http://club.cyworld.com/2006wlic>

## 2006서울WLIC 자원봉사자 인터뷰



정은혜 \_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1.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소감은 ?

문헌정보학과를 들어온 순간부터 교수님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은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더욱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어 더욱더 기쁘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 2.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사람을 만나면 환하게 웃을 자신요!!  
이번 서울대회를 정말 기대해온 만큼 누구를 만나도 진심으로 반가워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상대방이 같이 웃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 3.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활동 후 나의 모습은 ?

도서관인이라는 자부심과 세계속의 도서관인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올해 혼자 뉴욕공공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면 도서관계를 보고 생각하는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질 듯 싶어요.



### 이시이 미야 \_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1.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소감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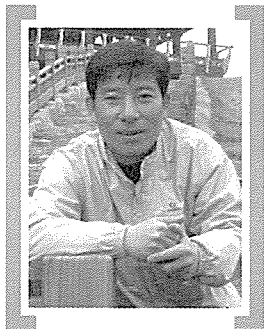
아직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은 안납니다. 하지만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외국인으로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것이 아주 기쁘며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 2.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고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한국도서관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 3.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활동 후 나의 모습은 ?

서울대회를 통해 전공 및 도서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특히 일본사람)에게 한국도서관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토론도 해보고 싶습니다.



### 고재훈 \_ 인천주안도서관 사서

#### 1.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소감은 ?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도서관 역사에 남을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영원히 도서관인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평소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할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기획, 촬영, 편집에 이르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회의 현장 곳곳을 카메라에 담아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 3.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활동 후 나의 모습은 ?

이 대회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도서관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06서울WLIC 자원봉사자들이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다.”에 참여한 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최진근〉 자원봉사자는 응급구조대다. 〈곽지선〉 자원봉사자는 날개 잃은 천사다. 〈정화〉 자원봉사자는 도서관계의 희망이다. 〈김수진〉 자원봉사자는 행복나눔사이다. 〈황민영〉 자원봉사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박경하〉 자원봉사자는 초콜릿 시럽이다. 〈김선형〉 자원봉사자는 붕어빵의 앙꼬다. 〈남기홍〉 자원봉사자는 내 마음의 나침반이다. 〈김미진〉 자원봉사자는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한 촉매제이다. 〈고재훈〉 자원봉사자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 주는 가로등이다. 〈전고은〉 자원봉사자는 킥커벨이다. 〈이선화〉 자원봉사자는 행사의 자물쇠다. 〈조은혜〉 자원봉사자는 한국의 또다른 이름이다. 〈박지원〉 자원봉사자는 마침표이다. 〈곽하나〉 자원봉사자는 행운아이다. 〈원승환〉 자원봉사자는 결속의 힘이다. 〈최미영〉 자원봉사자는 아름다운 삶의 나눔이다. 〈김혜준〉 자원봉사는 움직이는 벤처기업이다. 〈김경운〉 자원봉사자는 글로벌 시대의 브릿지이다. 〈김예빈〉 자원봉사자는 민간외교관이다. 〈이원규〉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첫인상이다. 〈이수진〉 자원봉사자는 산소탱크이다. 〈신하늘〉 자원봉사자는 서울대회의 다크호스이다. 〈황현숙〉 자원봉사자는 문화의 전달자이다. 〈장해민〉 자원봉사자는 표지판이다. 〈고영선〉 자원봉사자는 젊음의 발산이다. 〈이정혜〉 자원봉사자는 친절의 선두자이다. 〈이지혜〉 자원봉사자는 천사이다. 〈주연아〉 자원봉사자는 투명인간이다. 〈최원희〉 자원봉사자는 셀레임이다. 〈이연희〉 자원봉사자는 등불이다. 〈김지윤〉 자원봉사자는 해바라기이다. 〈전혜영〉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주춧돌이다. 〈박경련〉 자원봉사자는 행사를 무르익게 하는 박테리아다. 〈남현진〉 자원봉사자는 테이프이다. 〈이은혜〉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얼굴이다. 〈오혜자〉 자원봉사자는 지팡이이다. 〈도묘〉 자원봉사자는 무지개이다. 〈심인경〉 자원봉사자는 붉은 악마이다. 〈양단〉 자원봉사자는 푸른잎이다. 〈최한나〉 자원봉사자는 우리나라의 웃음이다. 〈백지희〉 자원봉사자는 참가자들의 지팡이이다. 〈김은정〉 자원봉사자는 천사의 날개이다. 〈오연자〉 자원봉사자는 세상의 빛이다. 〈공정자〉 자원봉사자는 율령류이다. 〈박현우〉 자원봉사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정주리〉 자원봉사자는 아름다운 동행자이다. 〈정애자〉 자원봉사자는 빛이다. 〈전은미〉 자원봉사자는 해바라기이다. 자원봉사자는 빛나는 땀방울이다. 자원봉사자는 그림자이다. 자원봉사자는 대박이다. 자원봉사자는 축복이다. 자원봉사자는 행사의 기준이다. 자원봉사자는 악방의 감초이다. 자원봉사자는 밀바탕이다. 자원봉사자는 빛과 소금이다. 자원봉사자는 효자손이다. 자원봉사자는 한국의 이미지이다. 자원봉사자는 대회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